# 김홍술 스트로크 1위 "우승 노리겠다"

**2104 스포츠동아 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3차 예선**

**동타 후 카운트 백 방식으로 정상 차지**
**이해영·이정재·장흥수·공병선 결승행**
**여성부 박정례 2언더파 '압도적인 1위'**
**마지막 4차 예선 8월 25일 충북서 열려**



7일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골프장에서 열린 '2014 스포츠동아 골프버디 아마추어 골프대회' 3차 예선에서 김홍술(오른쪽)이 강호들을 제치고 스트로크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시상식 후 골프버디코리아 허원영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골프버디코리아

아마추어골프 무대에서도 신진세력의 돌풍이 계속됐다. '2014 스포츠동아 골프버디 아마추어골프대회' 3차 예선에서 김홍술이 스트로크 부문 1위에 올랐다.

김홍술은 7일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쳐 정재창, 안영조와 동타를 이뤘지만, 카운트 백 방식에 따라 리더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다.

1·2차 예선에 이어 이날도 전통의 강호들은 힘을 쓰지 못한 반면 신진세력의 강세가 이어졌다. 김홍술은 아마추어골프 무대에서 무명에 가깝다. 2년째 용인시대표로 활동 중이지만, 아마추어골프대회 우승 경험이 거의 없다.

이날 경기는 퍼트의 승리였다. 전반을 1언더파로 마친 김홍술은 후반 시작과 함께 보기를 적어내 타수를 잃었다. 그러나 13번홀에서 2번째 버디를 성공시킨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어 16번홀과 18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스트로크 부문 정상에 올랐다. 김홍술은 "그린 상태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퍼트 감각이 좋았다. 버디 기회를 모두 살려낸 게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2012년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해 11위에 그쳤던 김홍술은 "올해만큼은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는 "결승전 우승을 위해선 남은 기간 거리를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거리가 약 230m인데, 10~20m 정도 더 늘리면 더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승에서 강호들을 상대로 우승경쟁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예선에서 탈락의 쓴 맛을 봤던 전통의 강호들도 이번에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해영은 2언더파 70타로 예선을 통과했고, 이정재 장흥수 공병선은 1언더파 71타를 쳐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여성부에서도 접전이 펼쳐졌다. 29명이 출전해 6대1의 경쟁률을 보인 여성부에선 박정례가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1위로 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 2언더파 70타를 쳐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정란은 2오버파 74타로 2위, 조예원 이종영 이미영이 5위에 들어 남은 결승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3차 예선까지 끝나면서 결승 진출을 위한 기회는 딱 한번 남았다. 4차 예선은 8월 25일 충북 청원군 실크리버골프장에서 벌어진다. 결승전은 9월 1~2일 경기도 용인 태광골프장에서 펼쳐진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주최: Golf Buddy 스포츠동아


노박 조코비치가 7일(한국시간) 올잉글랜드클럽에서 벌어진 제128회 윔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우승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런던 | AP뉴시스

## 조코비치, 7번째 메이저 정상

**윔블던테니스 남자단식 페더러 꺾고 우승**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27)가 제128회 윔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우승컵을 품었다.

조코비치는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의 메인코트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33·세계랭킹 4위)를 3-2(6-7〈7-9〉, 6-4, 7-6〈7-4〉, 5-7, 6-4)로 꺾었다. 2011년에 이어 3년 만에 이 대회 정상을 탈환한 조코비치는 개인통산 7번째 메이저 패권을 차지했다. 또 176만파운드(약 30억4667만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랭킹 포인트 2000점을 챙겨 1만3130점으로 라파엘 나달(28·스페인·1만2670점)을 2위로 끌어내리고 세계랭킹 1위로 한 계단 도약했다. 조코비치가 세계랭킹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조코비치가 18개월 만에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획득하자 그의 코치가 주목을 받았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연말 세계적 스타였던 보리스 베커(47·독일)를 코치로 선임했다. 베커 코치는 현역 시절 윔블던 3차례(1985·1986·1989년) 우승을 포함해 메이저대회에서만 6차례 정상을 밟은 스타플레이어였다. 영국 언론은 베커 코치가 메이저대회 중 유일하게 잔디코트에서 펼쳐지는 윔블던에서 우승했던 노하우를 조코비치에게 전수했다고 분석했다.

우승 직후 경기장 잔디를 뜯어 먹는 세리머니를 펼친 조코비치는 "2011년과 비교하면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며 웃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북한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 북한 당국은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 북한 '응원단, 亞게임 파견' 발표

북한은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전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이다.

북한응원단의 한국 방문은 2005년 9월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이다. 북한응원단은 2002부산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03대구유니버시아드, 2005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3개 대회에 북한선수단과 동행했다. 이들은 방한 때마다 이른바 '미녀 응원단'으로 화제를 모았다. 2005년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금성학원 학생 신분으로 인천을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 아시안게임 금메달?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김종건 전문기자의 V리그 레이더**

**■ 월드리그 결산·아시안게임 전망**

**E조 조별리그 3승9패 4개팀 중 최하위**
**풀세트 접전 경기 5번 모두 패해 아쉬워**
**박기원 감독 "집중력 높이는 것이 목표"**
**득점·높이 안정적 … 수비 불안이 문제**


2014 월드리그에서 한국 남자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한 박기원호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박기원 감독(왼쪽에서 두 번째)이 6월15일 포르투갈과의 울산경기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울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emarine007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의 2014 월드리그가 7일(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과의 원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리 남자배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표 참조) 1차 목표로 했던 2그룹 잔류는 성공했다. 대신 대륙간라운드 E조에서 4개 팀 가운데 최하위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이란은 1그룹 A조 2위로 최종무대에 나갔다. 과연 한국의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가능할까?

**●유종의 미를 거둔 7일 포르투갈전**

대표팀은 7일 포르투 포보아드바르징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3-1(25-23 25-23 18-25 25-21)로 눌렀다. 이번 대회 4차례 대결에서 거둔 첫 승리다. 대표팀은 FIVB(국제배구연맹) 2014 월드리그 조별리그에서 3승9패로 승점 14를 기록했다. 9패 가운데 5패는 풀세트 접전이었다.

6일 포르투갈전에서 29개 범실로 자멸했던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승부처는 2세트였다. 포르투갈의 블로킹에 막혀 0-5로 출발한 한국은 10-16에서 최민호의 3연속 득점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여기서 세터 이민규의 결정적인 서브가 이어졌다. 이민규의 플랫 서브에 포르투갈의 리시브가 흔들리는 사이 최민호와 서재덕, 전광인이 폭발했다. 13-17에서 이민규가 서브권을 가진 뒤 3연속 득점했고 서재덕이 3연속 공격 성공으로 19-17로 역전에 성공했다. 먼저 세트포인트에 오른 뒤 24-23에서 곽승석의 스파이크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3세트를 18-25로 내줬지만 4세트 16-16에서 4연속 득점하며 승기를 잡았다. 박철우와 전광인은 각각 16득점·3블로킹, 14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센터 최민호는 블로킹을 5개나 성공시키며 11득점을 했다. 윙리시버 곽승석도 11점을 보탰다.

박기원 대표팀 감독은 "2세트 이민규의 서브 덕분에 이긴 것 같다. 포르투갈이 플랫서브 리시브에 약한데 이민규의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번 월드리그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아쉬운 점은 풀세트 경기를 5번 하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점이다. 첫 번째 목표는 2그룹 잔류였고 두 번째 목표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선수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상을 대충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월드리그에서 드러난 인천 아시안게임 전망**

수치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 감독은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대표팀은 조만간 다시 소집돼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조직력 극대화 작업에 매진한다. 아시아권에서는 1그룹에 속한 이란이 최고전력이고 한국 일본 중국은 경기를 해봐야 안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변수는 있다. 이란은 월드리그 파이널과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한 강팀이지만 아시안게임을 향한 의지가 한국과는 다르다. 우리는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해야 하는 목표가 있지만 이란은 여러 대회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홈 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있다. 경기에 사용할 공도 우리 선수들에게 익숙한 스타볼이다. 국제대회에서는 일본제 미카사를 주로 쓴다. 심판 배정에서도 한국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는 우리 선수들의 목표의식도 변수다.

**●대표팀은 어떻게 구성되며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포르투갈과의 원정에 나섰던 선수 대부분이 인천아시안게임 최종엔트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세대교체에 들어간 대표팀은 전광인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광인은 2그룹 득점순위 2위다. 185득점으로 가빈 슈미트(캐나다 237득점) 다음이다. 스파이크 성공률은 전광인이 5위(53.11%) 박철우가 6위(51.78%)다. 블로킹 부문은 최민호가 세트당 0.49로 10위다. 아직 실전감각이 떨어져 경기에 나가지 못한 신영석과 박상하가 가세하면 높이도 안정적이다. 문제는 수비다. 디그와 서브리시브 순위에서 10위 안에 누구도 들지 못했다. 박 감독은 정민수와 부용찬에게 디그와 서비리시브를 분담시키는 더블리베로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오현의 공백이 크다.

만일 대표팀 엔트리에 변수가 생긴다면 여오현의 복귀여부가 될 것이다.

한선수가 세트부분 3위를 차지한 세터는 문제가 없지만 보다 안정적인 서브리시브로 한선수에게 전달되는 공이 좋아야 대표팀의 득점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이번 월드리그에서 확인했다. 결국 남은 기간 대표팀 선수들은 안정된 서브리시브와 연결, 보다 공격적인 서브 특히 무회전 플랫서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월드리그 E조 최종순위

| 순서 | 팀 | 성적 | 승점 |
|---|---|---|---|
| 1 | 네덜란드 | 9승3패 | 24 |
| 2 | 포르투갈 | 6승6패 | 19 |
| 3 | 체코 | 6승6패 | 15 |
| 4 | 한국 | 3승9패 | 14 |

●FIVB 2014 월드리그 대륙간라운드 E조 한국 성적(최종)

| 순서 | 날짜 | 상대 | 홈/원정 | 결과 | 누적승점 |
|---|---|---|---|---|---|
| 1 | 5월31일 | 네덜란드 | 원정 | X0-3 | 0 |
| 2 | 6월1일 | 네덜란드 | 원정 | O3-1 | 3 |
| 3 | 6월5일 | 체코 | 원정 | X2-3 | 4 |
| 4 | 6월6일 | 체코 | 원정 | X2-3 | 5 |
| 5 | 6월14일 | 포르투갈 | 홈 | X1-3 | 5 |
| 6 | 6월15일 | 포르투갈 | 홈 | X0-3 | 5 |
| 7 | 6월21일 | 체코 | 홈 | X2-3 | 6 |
| 8 | 6월22일 | 체코 | 홈 | O3-0 | 9 |
| 9 | 6월28일 | 네덜란드 | 홈 | X2-3 | 10 |
| 10 | 6월29일 | 네덜란드 | 홈 | X2-3 | 11 |
| 11 | 7월5일 | 포르투갈 | 원정 | X0-3 | 11 |
| 12 | 7월6일 | 포르투갈 | 원정 | O3-1 | 14 |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6일만에 또 한국신기록**

김국영(안양시청)·여호수아(인천시청)·오경수(파주시청)·조규원(울산시청)으로 구성된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6일 중국 저장성 진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친선 육상경기대회에서 38초74로 우승했다. 이는 6월 30일 홍콩 인터시티대회에서 세운 종전 한국기록(38초97)을 6일 만에 0.23초 앞당긴 기록이다. 민지현(김포시청)·박미진(논산시청)·육지은·조은주(이상 인천남동구청)가 호흡을 맞춘 여자 1600m 계주 대표팀 역시 3분39초91로 종전 한국기록 3분41초20을 경신하며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 아르헨티나 꺾어**

휠체어농구대표팀이 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아르헨티나와의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55-46으로 승리했다. 오동석이 28점을 몰아넣으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한국은 2승1패로 A조 조별리그를 마쳤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